2021.8.8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한 목동 아모스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 5:24, 마태복음 23:23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지, 정, 의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져서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삼아 주시고 땅끝까지 237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강단메시지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살릴 RUTC의 237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은 안에 있는데 정의로운 것이 중요할까? 방법은 어떻게 전달하고 고치는가?가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너무 심하게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입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중용'이 중요하다. 적당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이 적절히 하기 위해 성령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믿음,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충만을 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 성장해 가야 한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향기, 빛,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 수준으로 자녀와 후대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아모스는 짐승과 뽕나무를 키우는 가난한 서민(농부)출신이었다. 아모스의 이름자체가 뜻이 '짐을 들어올린다, 짐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더 황당한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도록 파송하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모스에게 '너는 목동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데 게다가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과 학벌과 외적인 모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한 전도자였다. 가끔 우리는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고 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순종과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평범한 사람에게 아모스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3단체를 이길 수 없고 4차 산업시대, 미디어시대를 앞서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면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1. 첫 번째로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교훈을 얻어야 하겠다.

(1) 첫 번째로, 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앗수르의 위협, 가뭄 등) 자신의 영적문제와 불신자상태 6가지 문제 때문에 복음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이다. 그러나 오만가지 문제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문제가 많은 자들에게 계속 원색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모스 4장 9절을 보겠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안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사랑이다.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아모스 4장 1절을 보겠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불의와 악들이 지배하는 현장은 세상나라요, 사탄의 나라이다.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불신앙과 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통치하는 방법은 개인, 가정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강단메시지를 집중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렘넌트 리더이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3)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도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벧엘(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던 아마샤도 영안이 어두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모함하고 남유다로 추방하려 하였다.

2.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와 세상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 렘넌트들과 남길 자인

중직자 그루터기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과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성취를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의 시작이고 나를 살리는 언약이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겠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매주 강단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씀성취를 체험해야 한다. 그리고 WRC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2) 두 번째 언약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가 될 때 여호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현장이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도캠프이다. 이 전도의 현장에서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나와야 저주와 재앙과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 300, 30, 3의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오직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보잘 것 없이 보인다고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학벌이나 출신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언변이나 외모로 교역자나 말씀사역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물이 없어 목마름 같이 황폐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불가능한 현장까지 치유 할 수 있는 말씀과 복음을 주실 것이다. 이같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았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과 정신상태가 되고 만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된다.

(5) 우리들은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 것이 있고 결국에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승리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단과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을 결국에는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세상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절대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노바디(Nobady)를 에브리바디(Everybady)로 낫씽(Nothing)을 에브리씽(Everything)으로 만드는 영적 선지자, 영적 제사장, 영적 왕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과 후대들을 237치유서밋의 리더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으로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으로 절대불가능한 현장, 즉 정의와 공의와 복음이 없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서 아모스와 같은 제자를 찾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렘넌트 리더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을 파송하면 된다.
3. Dream, 꿈이다. 아모스처럼 시대의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미래의 그림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와 강단에 집중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혹시 나에게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 주어져도 그 일에 순종해 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할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또, 절대복음화시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